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286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마르 8,27-35)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눅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눅니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시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마르 8,27-35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막상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이리저리 여행을 하다보면 행복은 집에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지만 집에서 행복을 찾기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복이 어디 있을까 하고 또 다른 여행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 여행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일 속에 행복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낮으로 일만 하면서, 새로운 일만을 찾아서 여행합니다.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을 향해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돈을 벌기 위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빠져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한 사람, 돈을 많이 갖게 된 사람들도 행복하다고 말하지는 못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더욱 더 행복과는 멀어진다고 이야기하시기도 합니다.

우리 삶에서의 행복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정을 주고받는 이들과의 관계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드시는 분들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평화로움을 가져오는 분들은 평화로운 삶을 지냅니다. 부유한 분이나 가난한 분, 능력이 많은 분이나 적은 분이나 모두 함께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얻고 행복을 누립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긋나서 불편하게 지내는 상황 속에서는 즐거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투고 돌아서면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던 것들도 거슬리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무엇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가 행복하고 평화로움을 누리는 것에 커다란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이 좌우된다면 주님과 관계는 어떨겠습니까? 당연히 더욱 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느냐, 아니면 불편하고 어색하고 낯설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크게 달라집니다. 그냥 남들에게 들었던 것이나 남들이 경험한 것들에서 주님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색한 사이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화로움은 자리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얼마나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대답은 모두 다르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대답이 조금은 낯설고 어색한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주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보시는 것은 어떠시겠습니까. 주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지내는 모습 안에 우리 삶의 가장 커다란 행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수원교구 9월 나눔의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9월은 순교자 성월입니다. 한국 천주교회의 영적 보화인 수많은 유명 무명의 순교자들을 본받아 굳센 믿음의 생활을 합시다.

※ 2012년 본당의 날을 맞아 9월 9일 성가 경연 대회와 9월 23일 전신자가 참여하는 바자회를 합니다. 주님께 영광과 찬미 드리는 기념 미사와 견진 성사, 기념 행사를 통해 우리 공동체의 일치와 단합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장이 되도록 기도하고 참여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민수기의 구조

- 1) 시나이 산에서 (민수 1,1-10,10) : 시나이 광야 체류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조사, 성소의 봉헌, 레위인의 봉헌, 12지파의 확립이 그 내용이다.
- 2) 시나이 산에서 모압까지 (10,11-21,35) : 시나이를 떠나 40년간을 방황하다 모압 땅 경계에 있는 요르단 동쪽에 다다르는 여정을 보여준다.
- 3) 모압에서 (22,1-36,13) : 이스라엘 민족이 벌이는 전쟁과 두 번째 인구 조사, 정복할 땅에 대한 분배 등이 그 내용이다.

◆ 이 달에 읽을 말씀: 민수기 1,1-10,10

1.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인구 조사 (1,1-2)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집트 땅에서 나온 그 이듬해 둘째 달 초 하루날, 주님께서 ()에 있는 ()에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씨족과 집안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의 ()를 세어라. 모든 ()을 하나하나 호명하며 세어라.”

2. 레위인의 병역 면제(1,48-50)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파만은 사열하지도 말고, 그들의 ()를 세지도 마라. 너는 레위인들에게 ()을 모신 성막과 모든 기물과 거기에 딸린 모든 물건을 맡겨라.

3. 레위인들의 임무(3,5-10)

너는 레위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여, 그들을 ()사제 앞에 세워서 그를 시중들게 하여라. 그들은 성막의 일을 하여, 만남의 천막 앞에서 ()을 위한 임무와 ()를 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4. 사제의 축복(7,22-27)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

주님께서 그대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 위로 나의 ()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5. 광야를 인도하는 구름(9,15-18)

성막을 세우던 날에 ()이 성막, 곧 증언판을 모신 천막을 덮었다.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모양으로 성막 위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늘 그러하였다. 구름이 성막을 덮었고, 밤에는 그것이

()모양으로 변하였다. 구름이 천막에서 올라갈 때마다, 그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을

떠나고, 구름이 내려앉은 곳에 ()을 쳤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에 따라

길을 떠나고, ()에 따라 진을 쳤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이스라엘 민족이 힘들고 외로운 광야 여정을 밤낮으로 구름을 앞세워 길을 인도하시는 하느님을 바라보며 따라갑니다. 그 민족은 그렇게 차츰 하느님을 알아갑니다. 우리가 겪는 현재의 고통과 어려움도 하느님을 알아가는 깨달음의 과정입니다. 내가 겪었던 고통 중에서 깨달음의 순간을 체험한 적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소공동체가

기도하며...

정서 현정수
작곡

D A Em G Em A7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

G D Em E7 A7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알렐루야

D A Em G Em A7

중 - 기 하 고 봉사하 자 세 상 모두에 게

G D Em A7 D D7

마 음 보 - 아 기도하 고 함께 나 가자 천국 으 로

G D Em E7 A7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G D Em A7 D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